

건설동향브리핑

제457호 (2014. 4. 14)

■ 경제 동향

- 2월 국내 건설수주, 공공 부문 호조로 17.6% 증가

■ 특집 / 전국 주요 권역별 주택시장 진단

- 수도권, 대구·경북, 경남, 호남 등 4개 지역을 중심으로

■ 정보 마당

- 조직 구성원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필요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금메달보다 소중하게 다가온 감동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2월 국내 건설수주, 공공 부문 호조로 17.6% 증가

- 민간 6.1% 감소 · 공공 75.5% 증가, 도로 관련 수주 급등 -

■ 전년 동월 대비 17.6% 증가, 5개월 연속 증가세 시현

- 2014년 2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 부문의 호조로 전년 동월비 17.6% 증가한 5조 2,116 억원을 기록, 지난 2013년 10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시현
 - 5개월 연속 수주가 증가한 것은 지난 2011년 8월~2012년 2월 이후 대략 2년 만임.
 - 수주액 자체도 2월 실적으로는 최근 6년래 두 번째로 높아 양호함.
 - 다만, 최근 2월 수주가 증가한 것은 민간 부문의 수주가 6.1% 감소해 부진한 가운데 공공 부문의 수주가 75.5%나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건설 경기가 회복 국면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공공 부문 : 전년 동월비 75.5% 증가, 비주택 건축 제외한 모든 공종 증가

- 비주택 건축을 제외한 모든 공종에서 호조를 보여 2월 실적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2조 2,587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75.5% 증가함.
 - 공공 토목수주는 도로 및 교량 수주가 크게 증가하여 전년 동월 대비 99.2%나 증가한 1조 9,131억원을 기록함. 2월 실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SOC 예산의 증액 및 조기 집행으로 수주가 급등한 지난 2009년 2월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실적임.
 - 공공 주택수주는 기저 효과로 전년 동월 대비 100.6% 증가한 1,563억원을 기록함.
 - 한편, 비주택 건축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23.9% 감소한 1,893억원으로 부진

<2014년 2월 건설 수주>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 분	총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2013. 2월	4,431.1	1,287.1	960.4	326.6	77.9	248.7	3,144.0	389.3	2,754.7	1,453.8	1,300.9
2014. 2월	5,211.6	2,258.7	1,913.1	345.7	156.3	189.3	2,952.8	349.8	2,603.0	1,266.6	1,336.4
증감률	17.6	75.5	99.2	5.8	100.6	-23.9	-6.1	-10.1	-5.5	-12.9	2.7
2013. 1~2월	7,977.3	2,576.6	1,872.2	704.4	304.2	400.2	5,400.6	1,191.3	4,209.3	2,051.0	2,158.4
2014. 1~2월	10,511.8	4,360.3	3,786.7	573.6	229.7	343.9	6,151.5	651.7	5,499.8	3,449.5	2,050.3
증감률	31.8	69.2	102.3	-18.6	-24.5	-14.1	13.9	-45.3	30.7	68.2	-5.0

주 : 민간 수주는 국내 외국기관과 민자 수주액이 포함된 금액임.
 자료 : 통계청

■ 민간 부문 : 비주택 건축 제외한 모든 공종의 부진으로 6.1% 감소

- 비주택 건축을 제외한 모든 공종이 부진해 전년 동월 대비 6.1% 감소, 지난 2013년 10월~2014년 1월까지 4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증가세를 마감함.
- 민간 토목수주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시작된 지난 2008년 이후 2월 실적으로는 두 번째로 낮은 3,498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10.1% 감소함.
- 주택수주는 신규 건축수주의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9% 감소, 2월 실적으로는 3년래 최저치인 1조 2,666억원을 기록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마감함.
- 한편, 비주택 건축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2.7% 증가한 1조 3,364억원을 기록함.

■ 건축 : 사무실 제외 모두 부진, 토목 : 도로·발전소 등 특정 공종 제외 대부분 부진

- 건축수주의 경우, 사무실 및 점포 수주를 제외하고 모두 부진했음.
 - 사무실 및 점포 수주가 5.6% 증가해 양호했으나, 주택, 공장 및 창고, 관공서 수주는 각각 7.1%, 17.9%, 4.6% 감소해 부진한 모습을 보임.
- 토목 공종의 경우 도로 및 교량 수주가 매우 높은 실적을 보임. 단, 도로와 발전소 등 특정 공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종은 대부분 부진한 모습을 보임.
 - 도로 및 교량 수주는 월간 실적으로는 2011년 12월 이후 최대치이며, 2월 수주로는 역대 최대치인 1조 4,220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628.9% 급등. 이는 작년 말로 예정되었던 대규모 고속도로 공사의 사업자 선정이 올 2월에서야 결정되었기 때문임.
 - 발전 및 송전 수주도 8.3% 증가해 양호한 모습을 보임.
 - 철도 및 궤도는 73.1% 감소하였으며, 토지 조성도 4.3% 감소해 부진하였음.
 - 기계설치 또한 18.8% 감소하여 부진한 모습을 보임.

<주요 세부 공종별 수주액 및 증감률>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분	건축					토목					
	주택	사무실 및 점포	공장 및 창고	관공서	기타	도로 및 교량	철도 및 궤도	항만 및 공항	토지 조성	발전 및 송전	기계 설치
2014. 2월	1,422.9	908.4	186.9	393.8	36.7	1,422.0	42.2	46.1	183.8	122.0	238.0
증감률	-7.1	5.6	-17.9	-4.6	-24.6	628.9	-73.1	-76.2	-4.3	8.3	-18.8
2014.1~2월	3,679.2	1,380.2	319.1	571.0	123.8	1,615.5	1,383.8	96.4	319.2	234.5	440.8
증감률	56.2	11.9	-41.6	-6.1	-27.1	218.8	688.4	-56.3	4.4	-2.8	-62.5

자료 : 통계청

박철한(책임연구원 · igata99@cerik.re.kr)

전국 주요 권역별 주택시장 진단

- 수도권, 대구·경북, 경남, 호남 등 4개 지역을 중심으로 -

■ 수도권 : 주요 주택 지표 일제히 회복세, 분양시장도 실수요자가 견인

- 수도권 주택시장이 4.1 대책 발표 이후 1년 만에 주택 지표상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회복의 주요 징표로는 i) 재고 소진(미분양 주택 수 감소), ii) 주택 매매 가격의 회복세(지난해 9월 이후 상승세가 6개월 이상 지속), iii) 거래시장의 회복세(올해 1~2월 수도권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 등이 있음.
 - 2.26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의 발표 이후, 매매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거래량도 위축되는 양상인 반면, 신규 분양시장은 실수요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활기를 띠고 있음.
 - 4월 공급 물량이 2.2만 호(최근 5년 간 4월 월평균 분양 물량의 3배)로 크게 증가, 청약자들의 대부분이 전세 거주에서 매매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실수요자층임.
 - 지난해 말 양도세 감면 조치가 종료되고,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 등이 발표되면 서 투자 목적의 신규 분양 주택 구매 수요는 크게 위축되고 있음.

■ 전세 가격 안정시 추가 매매 수요 크지 않을 전망, 지방 선거 결과 및 규제 완화 효과가 변수

- 이번 수도권 회복세의 특징은 실수요자가 주도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전세의 매매 수요 전환에 따른 실수요자가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
 - 3월 현재,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매매 비율은 63.6%(경기도, 66.9%)로, 전세 거주자가 의지만 있다면 매매로 전환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상황임.
 - 전세난이 심각한 일부 지역에서는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낮더라도 매매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 수익 공유형 모기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나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정부의 저리 정책 금융 대상도 확대되어 매수세를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에 의한 주택 구매의 수요 증가에는 한계가 있음. 전세 가격 안정시 추가 매매 수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임대 소득 과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지자체장 선거,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등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는 긍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됨.

김현아(연구위원 · hakim@cerik.re.kr)

■ 대구·경북권 : 2011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 2013년에는 전국 최고 청약 경쟁률 기록

- 대구·경북 지역은 2011년 하반기 이후 2년 6개월 이상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2013년에도 전국 광역시·도 중 최고의 집값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활기가 지속되고 있음.
 - 2014년 2월 현재, 대구 지역의 매매 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인 전월 대비 0.2%를 훨씬 상회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0.67%를 기록, 경북도 0.47%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분양 현장에서도 실수요자들이 중소형 위주로 큰 관심을 나타냄.
- 전국 최고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2013년에 이어 2014년 초반에도 다른 지역과는 현격한 차이가 날 정도로 높은 수준의 기록을 지속하고 있는 중임.
 - 다만 2014년 들어 청약 경쟁률이 다소 낮아지고 있는 것은 그동안의 과열 국면이 진정되면서 분양시장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으로 해석됨.
- 물량 측면에서도, 대구 지역의 경우 2013년에 전년 대비 91.7% 증가한 1만 9,650가구에 달하였으며, 2014년에도 1만 4,600가구가 예정되어 있어 주택시장의 회복세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음.
 - 미분양은 2009년 1월에 최대 2만 1,560가구까지 증가하였다가 주택 경기의 회복에 힘입어 2014년 1월 현재 955가구로 10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후, 2월에도 615가구로 계속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각종 개발 호조로 상승 기조 유지 전망, 대·내외적 변수에 신중해야

- 2008년 이후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인한 주택 공급의 급감으로 구조적 수급 불균형에서 벗어나 혁신도시의 건설에 따른 인구 유입, 대구 지하철의 연장 개통 계획, 성서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 호재가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상승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 다만, 향후 주택시장의 대·내외적 변수와 최근의 분양 호조에 따른 물량이 1~2년 후 본격 입주로 연결될 경우, 공급 우위로 급격하게 전환될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나홀로 호황’의 지역 분위기에 편승하기보다는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고려하여 실수요 위주의 중·장기적인 전망과 계획하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임.

두성규(연구위원 · skdoo@cerik.re.kr)

■ **경남권 : 신규 주택시장 중심으로 호조세**

- 부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해 9월부터 다시 상승세로 전환, 신규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음.
 - 부산은 지난해 8월까지 하락세였으나, 9월부터 반전되어 현재까지 보합세가 지속됨. 지난 2년 동안 분양이 많았음에도 미분양이 증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소함.
 - 2014년 분양 물량은 전년 대비 56.6% 증가할 예정이나,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양호한 주택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분양 성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음.
- 울산은 2013년 6월 이후 9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혁신도시·동구와 나머지 지역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함.
 - 우정 혁신도시는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높은 90.26대1의 청약 경쟁률을 나타냄. 동구는 현대중공업의 대규모 직원 채용과 인구 유입으로 작년 한 해 동안 14% 이상 상승
 - 나머지 지역은 보합세 수준의 미미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음.
- 경남은 부산과 유사한 흐름으로 하락세 이후, 2014년 들어서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음.
 - 2012년부터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가 하락세를 이끌었으나, 김해시와 거제시의 반전으로 2013년부터 경남 전반적으로 보합세로 돌아섬.
 - 2014년에 들어서도 전세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매매 가격의 상승도 견인하고 있음.

■ **부산 전반적 호조, 울산 상승세 둔화, 창원 약세 전망**

- 2014년 부산 주택시장은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나, 고분양가 상품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재고 주택시장은 전세 가격 상승세의 지속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판단됨.
- 국지적 지역의 이벤트 완료에 의해 울산의 상승세는 둔화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2014년에 분양되는 물량이 감소하여 보합세를 보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됨.
- 경남은 전년 대비 75.9% 증가하는 분양 물량이 공급됨. 특히, 창원시와 양산시에 집중될 예정임. 선도 도시인 창원의 약세로 경남 지역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허윤경(연구위원 · ykhur@cerik.re.kr)

■ **호남권 : 전남·북 분양 물량 공급 과잉, 광주 분양시장 호조세**

- 2013년 이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광주는 지속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나, 전남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전북은 2013년 2월을 제외한 모든 기간에서 하락
- 분양시장은 광주를 제외한 전남·북은 여전히 위축됨.
 - 청약 경쟁률은 광주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1순위 마감률 보임.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의 경우 청약이 기타 지역에서 마감되어 외부 투자 수요에 의한 구매가 일부 이루어짐.
 - 전남·북은 일부 중심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청약이 미달되었으며, 전주·완주 혁신도시도 3순위에서 마감되지 못함.
- 분양 물량은 광주의 경우, 금융 위기 이후 2012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서 2000년대 연평균 분양 물량(9,566호)을 하회한 반면, 전남·북은 최근 3~4년 동안 2000년대 연평균 분양 물량을 상회한 분양이 이루어짐.
 - 광주는 2013년 4,808호로, 2000년대 연평균 분양 물량의 1/2 수준에 불과함.
 - 전남은 2011~13년 동안 2000년대 연평균 분양 물량(6,417호)의 2배 수준의 분양이 이루어짐. 전북은 2012~013년 동안 2000년대 연평균 분양 물량(7,413호)을 상회함.

■ **임대주택 정책 변화에 따라 변동 예상**

- 광주는 금융 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한 공급 물량과 최근의 대책에 따른 제도 변화 등으로 주택 구매 수요가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 2000년대 이후 최저 미분양 물량(2014년 2월 340호)과 지속적인 매매 가격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근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자가 주택 구입에 나서고 있음.
- 전남·북은 공급 과잉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며, 주택 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아져 실수요자가 구매보다는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임차를 선호하고 있어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 변화에 따라 변동성을 보일 전망이다.
 - 전남·북은 주택 소비자가 임차를 선호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이 더 용이한 환경으로 변화할 경우,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엄근용(책임연구원 · kyeom@cerik.re.kr)

조직 구성원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필요

- 조직 구성원의 극단적인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어 -

■ 직무 스트레스가 직무 소진 야기

- 현대 사회는 급변하는 환경과 조직의 복잡화로 다양한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있음. 조직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조직 내 구성원이 받는 스트레스가 장기간 누적되어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직무 소진(Burnout)¹⁾임. 이는 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생산성의 저하, 결근, 이직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건설산업 종사자들도 높은 근무 강도, 많은 하도급 구조 등으로 직무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을 수밖에 없음.
- 이에 따라 조직 차원에서 구성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는 궁극적으로 구성원들의 직무 소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7대 직무 스트레스 유발 요인

- 일반적으로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심리적·생리적 역기능을 개인이 지각, 또는 경험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음.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① 물리적 환경 요인, ② 직무 특성 요인, ③ 역할 관련 요인, ④ 조직 특성 요인, ⑤ 대인 관계 요인, ⑥ 경력 개발 요인, ⑦ 개인 특성 요인 등 7개 항목이 있음.
 - 물리적 환경 : 작업장 환경 등 조직 구성원들이 적응해야 하는 물리적 조건
 - 직무 특성 : 직무 자체가 가지는 속성으로 과업의 다양성, 과업의 정체성, 과업의 중요성, 과업의 자율성 등으로 구성

1) 직무 소진은 장기적인 스트레스의 산물로서 신체적·정신적 반응의 집합체이자 결과물임. 즉, 직무 수행에 대한 조직 내외적인 압력의 증가와 자신의 능력 이상의 많은 요구가 자신에게 주어짐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의미함. 이러한 직무 소진은 정서적 소진(Exhaustion), 냉소주의(Cynicism), 직업 효율성(Professional Efficacy) 감소 등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됨.

- 역할 : 조직 내 특정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
- 조직 특성 : 조직 내 근무 환경 및 조직의 공식화된 정도
- 대인 관계 : 조직 내에서 구성원이 상사, 동료, 부하와 겪는 인간 관계
- 경력 개발 : 조직 구성원의 노력에 따른 승진 등 조직 내 경력의 변화
- 개인 특성 : 조직 구성원의 성별, 나이, 교육 수준, 성격 등으로 인한 개인 간 차이

■ 직무 스트레스 완화 수단으로서의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 이와 같은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이 있음.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은 현대 사회에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면서 조직의 효율성 증대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며, 다음의 3가지 기능을 수행함.
 - 첫째,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통제하는 기능
 - 둘째, 개인과 집단에 정보 전달 기능
 - 셋째, 조직 구성원의 감정과 정서를 표출할 수 있는 기능
-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만족 요인 중 업무성과 피드백, 커뮤니케이션 분위기, 직속 상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동료와의 커뮤니케이션,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직무 스트레스의 감소 및 조직 효율성 증대와 가장 높은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건설산업은 사람이 중요한 산업, 조직 차원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필요

- 건설산업은 수주 분야, 기술 분야 등 모든 영역이 사람의 역량과 능력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산업임. 경영자는 조직의 목표 달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조직 구성원의 능력 발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어야 함.
-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이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원활히 실행할 수 있는 조직 차원의 배려가 필요함.
 - 조직의 이러한 역할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극단적인 결과인 직무 소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최은정(책임연구원 · kciel21@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4. 4	경기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정책과 주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 - 2020년 양주 도시 계획 재수립(안) 승인 건 등 협의
4. 9	경기도시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양주 공공 주택지구 조성 원가 심의위원회'에 건설경제연구실 허윤경 연구위원 참여 - 조성 원가 심의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경제과 주최, '종합심사낙찰제 시범 사업 추진 방안 간담회'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연구위원 참여 - 종합심사낙찰제 시범 사업 관련 입찰자 평가 방안 검토

■ 「민간투자사업(BTO/BTL) 추진 일반 과정」 2차·3차 교육 개설

- 교육 일정 : 2차 교육 / 2014년 4월 22일(화)~24일(목) 21시간
3차 교육 / 2014년 9월 23일(화)~25일(목) 21시간
- 교육 장소 : 건설회관 9층 건설산업연구원 연수실(강남구 논현동 소재)
- 교육 대상 : 건설기업 SOC 민간투자사업 담당자, 정부·정부투자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무담당자, 설계·컨설팅 등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체 및 금융기관 관련 사업 담당자
- 교육 비용 : 45만원/인 ※ 고용보험 납부 사업장의 재직자일 경우 일부 환급
- 문의 : 기업지원팀 교육 담당(Tel. 02-3441-0691, 0848), 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

■ 최근 발간물 현황

유형	제목	주요 내용
건설이슈포커스	건설산업의 부조리 사례 특성 및 요인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의 부실·부정·부패 등 실제 부조리 발생 사건 사례들로부터 특성 및 유발 요인들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함. - 언론 보도, 법원 판례, 감사원 감사 결과 등 3개 자료원의 사례 총 214건을 분석 • 분석 대상 건설 부조리 사건 중 '뇌물' 관련 사건이 전체의 43.0%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다음으로는 '명의 대여'가 11.2%, '업무 과실' 및 '사고'가 각각 7.5%, '담합'과 '하도급'이 각각 7.0%, 그리고 '하자 보수·손해 배상'이 2.8%를 차지 - 언론 보도, 법원 판례, 감사 결과 모두에서 '뇌물' 사건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감사 결과에서는 전체 부조리 사건의 77.8%가 '뇌물' 관련 사건이었음. • 건설 단계별 부조리 사건의 발생 빈도는 '입찰·계약 단계'가 43.0%이고, '시공 단계'가 27.1%를 차지 - '입찰·계약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조리 사건의 54.3%가 '뇌물' 사건임.

금메달보다 소중하게 다가온 감동

“저는 정말 속상하지 않아요”. 소치 동계올림픽 갈라쇼를 마친 뒤 김연아가 던진 말이다. 정말로 그녀의 얼굴은 환하고 편안해 보였다. 금메달을 빼앗긴 억울한 심정이 얼굴에 묻어날 법도 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결코 쉽지 않는 일이다.

무엇이 김연아로 하여금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갖게 하였을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 그것보다는 수많은 연습과 실전의 과정에서 엄청난 실패와 좌절을 맞보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도전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라”. 불교 경전 아함경에 전해 오는 붓다의 말이다. 남이 쏘는 첫 번째 화살을 맞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두 번째 화살이다. 두 번째 화살은 바로 자기 자신이 쏘는 화살이다. 첫 번째 화살을 맞고 분노와 원망의 마음을 일으킬 때 우리는 두 번째 화살을 맞게 된다. 첫 번째 화살만으로 상처가 심해지지 않는다. 마음 속으로 두 번째 화살을 맞을 때 상처는 더 깊고 넓게 퍼진다.

김연아는 첫 번째 화살만 맞은 것이다. 스스로의 굳건하고 담담한 마음으로 두 번째 화살을 물리친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더 큰 감동을 주었고 존경을 받게 된 것이다.

삶의 과정에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야만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를 입힌 사람,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에게 미움, 분노, 그리고 원망 따위를 품고 있는 한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만약 상대가 의도적으로 독화살을 쏘았다면 두 번째 화살을 피하는 노력은 더더욱 중요하다. 미움과 분노, 원망의 마음을 일으킨다면 결국 상대방의 의도대로 말려들고 말테니까.

물론 잘못된 심판과 제도의 문제를 덮어 두자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는 것이 정의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대한 쿨 하게 접근해야 한다. 판정은 쉽게 번복되기 어렵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더 큰 상처를 입지 않게 된다. 잘못된 판정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바로잡겠다는 생각을 넘어 보다 나은 제도를 만들겠다는 더 큰 뜻도 담겨 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상처를 덜 받으면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건설경제, 2014. 3. 18>

윤영선(연구위원 · ysyoon@cerik.re.kr)